

교회 · 지역 · 창조세계를 살리는 '선교적 교회' 포럼

광주벚엘교회 창립 46주년 기념 20(월)~21(화) 이틀간 개최

'교회, 지역, 창조 세계를 살리는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한 '동반자 선교적 교회 포럼'이 10월 20일(월)~21일(화) 광주벚엘교회(담임 리종빈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세워새신학포럼(대표 이세일)과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대표 이박행)이 공동 주최하고, 세워새 코리아(대표 송창근)가 주관했으며,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 광주동명교회 · 광주벚엘교회 · 미션21 · 광주CBS · 한국복음방송 등이 협력했다.

신학 세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목회정책론"

첫 번째 발제는 이박행 목사(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대표)가 맡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목회정책론'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생태위기와 사회분열의 시대에 목회는 더 이상 교회 내부의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과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회복적 목회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근거하여 신학 · 생태 · 사회가 통합된 교회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교단 차원의 실천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어 최동규 교수(서울신학대학원장)가 '건강한 교회 성장과 선교적 교회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선교적 교회는 성장과 선교를 분리하지 않고, 건강한 내적 공동체성과 외적 파송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구조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둘째 날: 한국적 선교적교회 유형 제시

둘째 날 첫 순서로 조해룡 교수(주안대학원대학교 선교학)가 '한국적 선교적 교회 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한국 교회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며 "한국 교회는 서구 모델을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 관계와 연대 중심의 토착화된 선교형 교회 모델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 '녹색교회를 위한 지원과 사례'를 통해 현장 적용 방안을 나눴다.

마무리 시간에는 이상복 목사(광주동명교회), 리종빈 목사(광주벚엘교회), 이박행 목사(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등이 나서 포럼에 대한 소감과 교회 적용 사례를 나누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포럼을 계기로 광주 교회의 경신과 지역변혁운동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교회가 생명과 정의, 창조 회복의 현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했다.

주최 단체 소개

'세워새 코리아'는 세대 · 이념 ·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랫폼의 약자로, 안산동산교회의 한국교회 섬김사역 일환으로 설립되어 교회 연합과 선교적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은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기반하여 신학 · 생태 · 사회 영역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며,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는 단체이다.



이웃초청 가을 힐링음악회에서 뮤지컬 배우 류승주와 재즈피아니스트 배희주가 협연하고 있다.

광주벚엘교회 창립46주년 기념행사 성료

이웃초청 힐링음악회, 선교적교회 포럼 등 다채

올해 10월 창립 46주년을 맞은 광주벚엘교회(위임목사 리종빈)가 창립기념으로 마련한 이웃초청 가을 힐링음악회와 동반자 선교적 교회 포럼, 총회 장로찬양단 초청 수요음악회 등 3색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표방해 온 광주벚엘교회는 예장통합인 허브와 손잡고 46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월 19일(주일) 오후 3시 30분, 뮤지컬 배우 류승주와 재즈피아니스트

배희주를 초청해 이웃초청 힐링 가을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초청된 지역주민들에게는 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선물도 증정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이 교회는 또 이어 20일(월)과 21일(화) 이틀 동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지역의 목회자와 교회종교직자들을 초청해 '동반자 선교적교회 포럼'을 가졌다.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녹색

교회',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 '한국적 동반자 선교적 교회' 등 10가지 주제 강의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포럼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광주벚엘교회에서 포럼을 한다가에 시간을 내서 참여했다"며 "강의내용이 모두 깊이가 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너무나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34회 하나된소리 창작극 '생애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

23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제34회 하나된소리 창작극 '생애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 공연이 오는 10월 23일(목) 저녁 7시에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활동 20주년을 맞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되새기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본 공연은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의 '2025년 광주형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1회 무료로 공연된다.

(사)실로암사람들에서 주최하는 하나된소리는 1990년 2월에서 시작하여 33회까지 진행되었으며 공연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문화로 표현하는 공연을 진행해 왔다.

공연에는 실로암수어중창단, 극단 진달래피네가 함께 하며, 이야기 손님으로 임은정 검사장, 이명숙 변호사, 정웅섭 선생, 정지혜 선생님이 참여 20년의 기록과 기억을 무대 위에서 나누게 된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도가니대책위)는 2006년 7월 6일, 광주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처음 결성된 연대이다. 이후 점차 활동 범위를 넓히며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 단체로 확대되었다. 대책위는 광주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가해자 처벌, 공립특수학교 설립, 성폭력특별법 개

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이루어 내고 장애인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발제자 및 광주 교계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동반자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다짐하며 결의를 다졌다.

서광주교회 장로임직기념 예배

일시 : 2025년 10월 26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서광주교회 예배당



위임목사 조 규 성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 장로임직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 로 · 임 · 직



이용철



황미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광주교회
SEO GWANG JU PRESBYTERIAN CHURCH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99번길 10 / 교회 062)365-7004, http://seogwangju.kr